
제30차 實行理事會

○일시 : 1985. 11. 29(금) 08:00~09:30

○장소 : 본회 회의실

(협의사항)

1. 환자이송기록 (Transfer Note) 양식 통일 검토

환자 이송시 초진 의무기록 송부 요청이 많아지고 있으나 송부할 의무기록 양식이 병원마다 상이한 문제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본회가 의무기록협회 및 관련학회와 협의하여 일정 양식으로 통일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회장단에 위임, 신중히 연구 검토키로 하다.

2. 차기 병원관리종합학술대회 운영 요령 협의

금년도 학술대회는 전체회의로 개최되었으나 앞으로는 각 분야별로 보다 심층있게 연구 발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어 준비시키고 준비위원회에서 사전에 그 개요를 검토 확정해야 하겠으며 종합학술대회의 운영요령도 전체회의, 분과별 토의, 종합토의 및 결론 순으로 진행하고 병원 일반 실무자들이 다수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참가비를 약 1만원 선으로 대폭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하다.

3. 정신보건법안 대책

국회 보사위에서 입법 검토중에 있는 이 법안은 국가의 책임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의 책임만을 규제하여 그로 인한 문제점과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후 제정되도록 본회 건의문을 작성 제출하되 본회 박성덕 경영이사가 주관하여 이규항박사(안양 신경정신병원 이사장) 및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이같은 법안의 부당성을 정리 제시하고 그 내용을 전문지 및 일간지에도 홍보키로 하다.

제31차 實行理事會

○일시 : 1985. 12. 6(금) 08:00~09:20

○장소 : 본회 회의실

(협의사항)

1. 제 5 차 5개년계획 보건의료부문 합동 연구

하호육 사무총장이 제 4 차 회의에서 토의된 보건의료부문 계획중 의료보장, 보건인력수급, 의료기관수급, 의료전달체계 및 농어촌 1차 보건의료의 강화 등의 주요내용과 이 계획이 앞으로 의료계에 미칠 영향에 관한 보고를 함에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의료계의 여망이 충분히 반영될

수 있도록 본회와 의협이 합동연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키로 하다.

2. 정신보건법안 건의서 제출 후속조치

이 법안에 대한 본회 건의서는 국회에 제출('85. 12. 5) 되었으나, 금번 회기중 ('85. 12. 18) 일반 민생법안과 일괄 처리될 우려가 있으므로 회장단 및 임원들이 국회, 민정당 등을 방문 최선을 다해 그 문제점과 부당성을 설득하여 유보 내지는 폐기시키기로 하다.

3. 보사정책 의료계 여망 반영 대책 강화

의료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보사정책이 확정된 연후에 대책을 강구하는 것 보다는 평소에 유대를 가지면서 정책입안 전에 정보를 입수하여 의료계의 여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보담당부서를 신설하는 등 협회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원로 병원장급에서도 정책 관련 각종 기구에 적극 참여토록 권장키로 하다.

제32차 實行理事會

○일시 : 1985. 12. 13(금) 08:00~09:40

○장소 : 본회 회의실

(협의사항)

1. 제 6 차 5개년계획 보건의료부문 자체 연구위원회 구성 검토

이 계획에 우리 병원계의 여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제 31차 실행이사회에서 협의된 본회와 의협이 합동연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 보다도 본회 단독으로 자체 연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문제를 회장단에서 검토 추진키로 하다.

2. 회비 및 심사비 미납병원 납부 촉구

회비 납부는 회원병원의 기본의무에 속하므로 미납병원에 대하여는 납부를 촉구하고 특히 수련병원중 회비 및 심사비 미납분은 유선으로 직접 재독촉키로 하다.

3. 정신보건법안 대책 공동노력 경주

본회가 그동안 정신보건법안의 문제점을 들어 저지를 위해 노력한 결과 국회 및 민정당 등에서도 시인되어 금년 회기기간 중에는 산정이 유보될 것이 확실시되어 여가가 다소 있으므로 전 상임이사진에서도 이 법안의 문제조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요로에 설득하는 등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, 본회도 정신과학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단일안이 개정 건의되도록 노력키로 하다. *